

농촌인구 감소...국민연금 가입 2500명 줄어

지난해 광주·전남 농어민 가입자 5만6188명...2년 연속 ↓ 노령연금 수급자는 늘어...“보험료 지원제도 문턱 낮춰야”

청년층 등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년보다 약 2500명 급감했다.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상시화하고 청년 농업인의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광주 5222명·전남 5만 966명 등 총 5만61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가입한 광주·전남지역 농어업인은 전년 5만8652명(광주 5300명·전남 5만3352명)보다 2464명(4.2%)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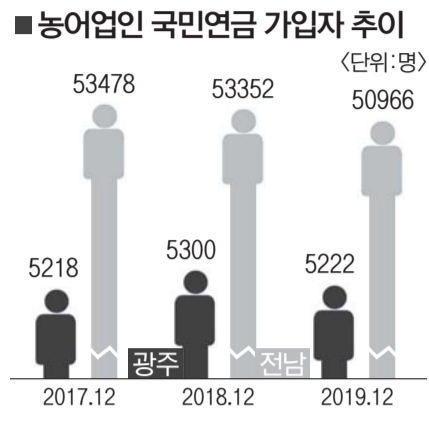
지난 2018년 가입자의 전년비 감소율 0.07%(44명)에 비하면 큰 격차를 보였다.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청년층 농업인 고갈

현상과 맞물린다.

농어촌 청년 국민연금 신규 가입은 적은 반면 고령화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단 측 분석이다. 지난 한 해 전남지역에서는 20~30대 9400명이 순유출됐고 20대 순유출률(-4.2%)은 전북(-4.5%)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노령연금 수급으로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의 신규가입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 농어업인 가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노령연금을 2017년(1956년생) 수급한 뒤 2018년 한 해 연금 수급을 쉬었다가 2019년(1957년생)에 수급한 가입자 수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전남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9만929명으로, 전년보다 5.1%(1만4297명) 늘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농가 평균 소득은 지난 2018년 기준 420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6482만)에 비해 2275만원 낮다. 전남 농가소득(3948만)은 그보다 2500만원 넘게 뒤쳐졌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1000㎡(300여 평)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

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월 97만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만3650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몇 차례 연장조치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연장된 뒤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또다시 연장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어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제도를 상시화하거나 지원 금액을 높이고,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농어업인 가입자 수에 대비한 광주·전남 가입자 비율은 2017년 15.4%, 2018년 15.5%, 지난해 15.6%로 ‘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32.96 (-5.42)
- ↓ 금리(국고채 3년) 1.28 (-0.02)
- ↑ 코스닥 687.61 (+1.02)
- ↑ 환율(USD) 1182.80 (+3.30)

광주신세계 지난해 영업이익 551억 흑자

전년보다 6.1% 증가

(주)광주신세계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1% 오르며 흑자영업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신세계는 연결 기준 지난해 한 해 광주신세계 영업이익이 551억원으로 전년 519억원보다 6.1%(32억)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광주신세계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563억원에서 이듬해 7.8%(44억) 떨어졌다가 2019년 반등했다. 당기순이익도 2017년 478억원에서 2018년 451억원으로 하락한 뒤 지난해 477억원으로 5.7%(26억)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신세계 매출은 전년(2092억)에 비해 25.9%(543억) 떨어진 1549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신세계 측은 매출 부진에 대해 지난해 1월 이마트 광주점과 신세계가 분리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

다. 광주신세계의 이마트 부문 양도가액은 41억3700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본점과 강남점, 부산센텀시티점 등 대형점포는 총 매출액이 5.3% 증가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강세로 백화점 판매가 위축된 가운데 명품은 전년 대비 매출이 20% 오르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18년부터 ‘구찌’ ‘생로랑’ ‘몽클레르’ ‘발렌시아가’ ‘보테가 벤테타’ 등 20~30대 고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도입했고 지난 연말에는 캐나다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노비스’로 젊은 고객층을 겨냥했다.

지난 6월 새로 문을 연 푸드플라자와 프리미엄 가전으로 구성된 생활전문관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승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 매출이 역신장한 가운데 명품은 13% 증가세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5개 은행 16억 출연 골목상권 돕는다

광주은행 5억·농협은행 4억

광주지역 5개 은행이 16억원을 출연해 골목상권을 돕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2일 광주시와 9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432억원 규모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와 은행권은 각각 20억원, 16억원을 출연했다.

광주은행은 5억원을 내며 가장 많이 출연했고,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4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하나은행 2억원, 신한은행 2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은행은 광주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함에 따라 연 0.5% 안팎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최저 0.38%~최고 0.70%

금리로 업체당 2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점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33억원을 광주시에 특별출연하고 6330여개 지역업체에 총 77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도 지난해보다 출연금을 2배 늘렸으며, 지난 2007년 이래 총 31억1900만원을 광주신보에 출연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중인 광주신보 영업점이나 협약을 맺은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이 왔네 봄이와 13일 (주)광주신세계 5층 여성 의류 ‘잇미사’ 직원이 화려한 색의 봄의류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역스타기업 찾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 다음달 9일까지 기술컨설팅 등 4000만원 지원

광주테크노파크가 3년 동안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스타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날까지 성장잠재력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발굴해 지역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 광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광주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이 우수한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31개가 선정됐고 2022년까지 5년 동안 75개의 광주 스타기업을 선정·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지정(2년 연장 가능)되며, 지정 첫 해는 기술 성장 컨설팅(R&D 과제 기획, 개솔개발 로드맵 등) 및 수출(마케팅,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등 기업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으로 4000만원 지원받

는다.

전담자를 배정받아 기술 및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 위한 상시 밀착 지원 프로그램 및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수출 규모에 따라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 등도 진행한다. 또 기업당 최대 4억원 규모의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자격과 함께 기업당 2000만원 주는 중소기업부 ‘수출성공패키지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주력산업과 연관 업종 해당 기업이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400억원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사업자, 그 외 성장잠재력, 기술 잠재력, 고용증가율, 수출 잠재력 등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해당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주)보명전자, (유)에니체, (주)유평테크, (주)우성정공, (주)티디엘 등 31개 광주지역 스타기업을 선정·육성해 전년 대비 매출 8.12%(362억원), 고용 7.97%(121명), 수출 6.4%(241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화점업계, 새봄맞이 신상품 특판행사

광주 낮 최고기온이 15도를 웃돌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3일, 지역 유통가는 본격적인 새봄맞이 판매를 진행한다.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5층 여성 매장은 봄철 의류로 새단장하고 브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스카프 등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4~20일 9층 행사장에서 소파·침대·식탁 등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새봄맞이 홈라이프 스타일 페어’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까지 대출
- 3~4억 원 대출 5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주택 대출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신우사업)
- 55세 이상 조합원 특소금융사업 지원 (희망사업)
- 저가형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